

문 의	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	과 장 마정윤 042-481-5099 사무관 임민섭 042-481-3568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8년 12월 21일(금)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.	

특허청, IP 검색 분야 민간 업체에 ‘리브콜’

- 특허 심사에 민간의 검색 기술 활용 추진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이 출원기술의 특허여부 판단을 위해 자체 보유한 검색시스템에 의존하던 지난 20년간의 심사 관행에서 탈피한다. 내년부터는 민간의 지식재산(IP) 검색 서비스도 적극 도입·활용할 계획이다.
- 특허청은 21일(금) 오후 2시 민간 업체와 함께 각자 보유한 IP 검색시스템의 특화된 기능을 시연하는 ‘민·관 IP 검색 시스템 설명회’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업체인 마크프로, 위트인텔리전스, 웹스, 위즈도메인(가나다 순)과 아울러 해외 글로벌 업체인 클레리베이트가 참여를 신청했다. 그간 IP 정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의 문을 두드려왔던 업체들이다.
 - 5개 민간 업체는 상표·특허 분야 심사관을 포함한 IP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우수한 검색 서비스 기능을 소개하고, 서비스 제공 및 기술 교류 등 특허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.

- 한편, 특허청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△ 키워드 입력 방식이 아닌 문서 단위의 특허 검색, △ 금속 성분비 및 화학식 구조 검색, △ 상표 이미지 검색, △ 디자인 캐릭터 검색, △ 상표 명칭의 주지·저명성 판단 등 검색 기능 고도화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, '19년부터 관련 기술 보유 업체를 선발하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.
- 특허청 마정윤 정보시스템과장은 “민간의 검색 기술을 이용한다면 특허청의 심사 품질 향상과 더불어 민간의 IP 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“IP 정보 검색 서비스는 산·학·연의 R&D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·관의 기술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전했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 사무관 임민섭(042-481-35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